



다큐멘터리 영화 '블랙핑크 더 무비'(왼쪽)와 공포영화 '귀문'이 4DX·ScreenX 등 특수 상영기법을 통해 전 세계 관객을 만난다.



사진제공 | CJ4DPlex·CJ CGV

4DX·ScreenX 최첨단 기법...관객 오감 자극

'블랙핑크 더 무비' 100여개국 공개 '귀문' 국내외 2000개관 개봉 확정 입체감·현장감으로 관객 사로잡을 듯

그룹 블랙핑크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전 세계 100여개국에서 공개된다. 또 한국 공포영화도 국내외 2000여개관에서 개봉한다. 한국영화의 해외에서 거의 시차 없이 선보이는 사례가 이례적인 것은 아니지만, 두 영화는 그 규모면에서 눈길을 끈다.

●세계적 팬덤에 실감의 체험을 보태다

블랙핑크는 자신들의 진솔한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블랙핑크 더 무비'(감독 오윤동·정수이·제작 ScreenX studio)를 8월4일 한국을 비롯해 독일·이탈리아·스웨덴·멕시코·터키 등에서 선보

인다. 이후 미국·프랑스·대만 등으로 확대해 100여개국에서 상영한다. 올해 8월 8일 데뷔 5주년을 맞으며 이를 기념하는 작품이다. 2016년 데뷔 이후 5년 동안 이들이 섰던 화려한 무대와 퍼포먼스, 인터뷰와 뒷이야기 등을 담았다.

이 같은 상영 규모는 블랙핑크가 그동안 쌓아온 세계적 팬덤으로 가능하다. 여기에 이들의 '칼박자와 칼안무', 다채로운 무대효과를 실감케 하는 현장감과 스케일을 체험할 수 있는 상영기법이 더해진 덕분이기도 하다.

8월18일 개봉하는 공포영화 '귀문'(감독 심덕근·제작 고스트픽처스, 주피터필름)도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2000여개관에서 관객을 만난다. 집단 살인사건으로 폐쇄된 수련원에서 심령연구소장과 호기심 많은 대학생들이 겪는 공포의 이야기이다.

'귀문'도 시각과 청각적 공포감을 극대화하고, 관객의 몰입감을 높일 수 있는 상영기법에 힘입었다. 관객의 감각을 자극함으로써 실제 공포 체험의 순간에 빠져들게 하는 힘이다.

●4DX·ScreenX, 최첨단 상영기법의 확장

두 작품은 4DX·ScreenX(스크린X) 등 특별상영관을 거점 삼아 해외 관객을 만난다. 관객이 극장에서 일반적으로 접하는 2D의 평면성을 뛰어넘어 입체감과 현장감, 스캐일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무대이다. 두 영화는 기획·제작단계에서부터 이를 겨냥해 만들어졌다.

4DX는 영화의 장면에 맞춰 실제 좌석이 움직이고, 바람·빛·향기 등 다양한 환경 효과로 관객의 오감을 자극한다. 스크린X는 정면을 포함해 좌우 벽면까지 모두 3개면을 스크린으로 활용해 더욱 넓은 화

면을 통해 생활상을 안긴다. '블랙핑크 더 무비'의 연출자이면서 '귀문'의 제작 총괄인 오윤동 감독은 "시각적으로 다양한 효과가 발휘되면서 영화 속 장면을 그대로 느끼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 기법은 국내 멀티플렉스 CJ CGV가 개발한 것으로, 두 영화는 CGV의 글로벌 배급·유통망을 중심으로 상영된다. 또 해외의 로컬 극장에 설치된 해당 특별 상영관에서 선보인다. 한국영화의 또 다른 영역 확장으로 읽힌다.

CGV 황재원 커뮤니케이션팀장은 "그만큼 매출 규모가 커지는 것은 물론 해외 관객에게 색다른 관람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면서 한국영화의 수출 경로를 확대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전초기지 삼아 향후 한류 콘텐츠의 해외 확산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연예뉴스 HOT 5

소녀시대, 14주년 기념 '유퀴즈' 출연



소녀시대

8인조 걸그룹 소녀시대가 데뷔 14주년을 맞아 tvN 예능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완전체로 출연한다. 멤버 모두가 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은 2017년 이후 4년 만이다. 28일 '유퀴즈 온 더 블럭' 제작진은 "녹화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소녀시대는 2007년 8월 데뷔해 '다시 만난 세계' 'Gee' '소원을 말해봐' '라이온 하트' 등 히트곡을 냈다. 2017년 정규 6집을 낸 이후 멤버별 활동에 집중해왔다. 태연은 솔로가수, 유리·서현·수영·윤아는 연기자로 활동 중이다. 효연과 티파니는 각각 DJ와 뮤지컬배우로 각종 무대에 오르고 있다.

'조인성 5억 후원' 탄자니아 학교 운영중



조인성

배우 조인성의 선행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밀알복지재단은 조인성이 과거 후원한 5억원으로 2018년 탄자니아 중부 싱기다 지역에 '싱기다 뉴비즈니스'를 완공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싱기다 지역은 탄자니아 안에서도 손꼽히는 빈곤지역으로 알려졌다. 조인성의 후원금 덕분에 학교가 생기면서 현재 총 351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다. 같은 날 배우 고아성의 기부 사실도 알려졌다. 고아성은 최근 자매들과 함께 분당차병원에 암환자 보호자들을 위해 써달라며 1000만원을 기탁했다.

영탁 소속사, 예천양조 상대 법적 대응 선언



영탁

트로트가수 영탁이 '영탁막걸리'의 예천양조와 갈등을 겪는 가운데 소속사가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영탁의 매니지먼트사 뉴에라프로젝트는 28일 "예천양조 측의 상표권 관련 행위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지 면밀히 살피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은 연예인 등 유명인이 자신의 얼굴이나 이름을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영탁과 예천양조는 '영탁막걸리' 광고모델 계약료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영탁이 "3년간 150억원"을 요구했다는 예천양조에 맞서 영탁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영탁과 임영웅의 생일 날짜가 상표로 출원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예천양조는 "본사와 관련 없다"고 일축했다.

그룹 '바이브', 리바이브 프로젝트 시작

그룹 바이브가 내년 데뷔 20주년을 앞두고 '리바이브'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다른 가수들이 바이브의 대표곡을 리메이크해 발표하는 방식이다. 28일 걸그룹 마마무 솔라와 문별이 첫 주자로 나서 바이브의 1집 '애프터글로'에 실린 '프로미스 유'를 재해석해 불렀다. 원곡과 다르게 레게 사운드로 편곡해 색다른 매력을 더했다. 류재현·윤민수로 구성된 바이브는 2002년 데뷔해 '사진을 보다가' '오래오래' '술이야' '그 남자 그 여자' 등으로 인기를 모았다.

방탄소년단, 일본 오리콘 차트 휩쓸어



BTS

미국 빌보드 정상에 오른 그룹 방탄소년단이 일본 오리콘 차트도 휩쓸었다. 28일 오리콘 최신 차트에 따르면 신곡 '퍼미션 투 댄스'가 19일~25일 1558만회 가량 재생돼 주간 스트리밍 1위를 차지했다. 앞서 발표한 '버터'와 '다이너마이트'는 각각 1342만회와 701만회로 2위와 3위에 올랐다. 특히 '버터'는 5월31일자 차트에 진입해 10주 연속 주간 재생수 1000만회를 넘겼다. 이날 일본레코드협회의 신규 인증 목록에도 '버터' '아이돌' '아이 니드 유' 등 5곡을 올렸다.



갯세븐 진영



유기즈 이준영



SF9 로운

진영-이준영-로운 '차세대 연기돌' 대표주자

갯세븐 진영 '악마판사'서 리틀 지성 '이미테이션' 마친 이준영 다작 승부 로맨스 상종가 로운, 10월 '연모' 주연

최근 안방극장에서 존재감을 키워가는 '연기돌'(아이돌 출신 연기자)이 있다. 갯세븐 진영, 유기즈 이준영, SF9 로운이다. 많은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연기에 도전하는 흐름 속에서 차세대 '연기돌' 대표주자로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진영은 현재 방영 중인 tvN '악마판사'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 재판이 하나의 거대한 쇼가 되어버린 미래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극중 스타 판사이다. 선배인 지성과 손잡고 불합리한 사법제도와 권력층에 맞서는 과정을 그리면서 시청률을 5%대(닐슨코리아)까지 끌어올렸다. 베레

랑 지성과 팽팽한 긴장감을 조성하는 등 돋보이는 연기로 '리틀 지성'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28일 화제성 분석 회사 굿데이 터코퍼레이션의 7월4주차(19일~25일) 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순위에서도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올해 가을 공개되는 티빙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에서 주인공 유미 역의 김고은과 로맨스를 펼친다. 앞서 1월에는 이병헌, 한지민 등이 소속된 기획사 BH엔터테인먼트로 옮겨 연기 활동의 토대를 마련했다.

최근 KBS 2TV '이미테이션'을 마친 이준영은 다작으로 승부한다. 실 톱 없이 넷플릭스 영화 '모럴센스', 드라마 '너의 밤이 되어줄게' 등을 주연한다. 2017년 tvN '부암동 복수자들'을 통해 연기자로 발돋움한 이후 MBC '이별이 떠났다', OCN '미스터 기간제', SBS '굿캐스팅' 등에 출연

하며 꾸준히 경력을 쌓아왔다. 올해 1월 MBC 예브라일 '제발 그 남자 만나지 마요'로 첫 로맨스 주연으로도 나섰다. 아이돌 경험을 바탕으로 '스웨그에이지' 등 뮤지컬 무대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로운은 '안방극장 셋별'로 방송가 안팎의 관심을 받고 있다. 190cm에 달하는 키와 또렷한 이목구비로 로맨스 장르에서 특히 인기가 높다.

3월 JTBC '선배, 그 립스틱 바르지 마요'를 내놓은 이후 10월 방송 예정인 KBS 2TV '연모', 내년 방영을 목표로 준비 중인 MBC '내일'의 주인공에 낙점됐다. 2019년 MBC '어쩌다 발견한 하루'로 주연 대열에 합류한 지 2년 만의 성과다. 첫 사극인 '연모'에서는 박은빈과 투톱 주연으로 나서고, 저승사자의 세계를 그리는 '내일'에서는 베레랑 김희선의 상대역을 맡아 화제가 됐다. 윤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모가디슈 vs 방법:재차의

여름 흥행대전, 한국영화가 중심에

여름 흥행 대전의 막이 올랐다. 두 편의 기대작이 개봉한 가운데 극장가에서는 8월 까지 한국영화의 흥행 경쟁이 펼쳐진다.

28일 영화 '모가디슈'(감독 류승완·제작 외유내강)와 '방법:재차의'(감독 김용완·제작 클라이맥스 스튜디오)가 나란히 개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거센 확산세 속에서 관객을 만나게 됐다. '모가디슈'는 '베레랑' 류승완 감독과 김윤석·조인성·허진호 등 스타급 연기자들이 250억원의 대규모 제작비를 들인 대작이다. '방법:재차의'는 tvN 드라마 '방법'의 설정과 캐릭터를 스크린으로 확대하며 검증된 이야기의 힘을 기대한다.

특히 대작인 '모가디슈'의 개봉 첫날과 첫 주말 흥행 수치가 관심이 쏠린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실시간 예매율(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은 37%가량으로, 관객은 7만3000명에 육박한다. 28일 한 멀티플렉스 극장 관계자는 "전국 극장의 절반이 몰린 수도권을 비롯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밤 10시 문을 닫아야 한다"면서 "때문에 전체 관객수의 20% 정도가 줄어든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모가디슈'의 예매율은 낮은 편이 아니다. 실제로는 더 많은 관객이 극장을 찾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CJ OGV의 예매 현황으로도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오후 '모가디슈'를 비롯해 '정글 크루즈' '방법:재차의' '보스 베이비' 등 예매율 상위권 작품의 연평별 분포에서 20대와 함께 30~50대 각 비중이 엇비슷하거나 20대보다 많다. 휴가철과 방학시즌에 가족단위 관객이 몰린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같은 바탕 위에서 8월11일 '싱크홀'(감독 김지훈·제작 더타워픽처스)과 18일 '인질'(감독 필감성·제작 외유내강)이 잇따라 관객을 만난다. 역시 기대작으로 꼽히는 작품인 만큼 극장가는 올해 여름시즌 뜨거운 흥행 경쟁으로 시장의 파이를 키운다. 올해 전체 흥행 판도를 새롭게 구축할 준비를 차리고 관객을 기다리게 됐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